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선생님 명설교 요약 정리말씀

승리하는 생활

본문 : 시편 23:1-6, 요한계시록 17:13-14, 창세기 22:13-14

** 말씀 핵심정리 **
믿음 조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심
믿음, 순종, 지혜, 담대, 인내, 사랑, 모심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쉴만한 곳으로 인도
어려움 중에도 그 중 제일 나은 곳으로 인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맡겨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니 신화가 일어났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자꾸 하면 된다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생활

▪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 오라." 했을 때 따라 행함.
▪ 두 번째는 "너의 아들을 나의 제물로 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받고서, 100세 가까이 되어 낳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었어요.
아브라함: 너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이삭: 아버지, 혹시 헛 계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드린단 말이에요. 장난치지 말고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꽁꽁 묶어서 이삭을 얹어놓고
아브라함: 너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이삭: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요.
아브라함: 눈을 감아라. 내가 칼로 너의 목을 칠거다.
이삭: 그러시지요.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목을 치시지요.
▪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순종도 잘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지만 이삭은 더 잘하네.'생각하며 칼로 이삭의 목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손을 거두라. 네가 나를 사랑함을 내가 더욱 알았노라. 됐다. 제물로 받았다!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 그거야 합당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풀었습니다.
▪ 그 다음에 아들을 풀어놓고 보니, 토실토실한 산양이 풀 넝쿨에 뿔이 걸려서 못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시다." 항상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벽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만, 모든 사람 앞에 행동으로 밝히게 하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삭은 정말 순종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순종' 하면 이삭, '믿음' 하면 아브라함, '지혜' 하면 솔로몬, '용맹' 하면 다윗 왕, '담대' 하면 여호수아, '인내' 하면 욥, '사랑'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도력' 하면 모세, '수종을 잘 들고 내조를 잘 한다.'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모심의 생활' 하면 성경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선생의 '회심'이 있습니다.

▪ 그리고 ‘불순종’ 하면 가인들, ‘악평자’ 하면 모세 앞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 수 있습니다.

▪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누이시네.” 하고 읊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다윗 같은 자들에게 늘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환난 때마다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읊은 것입니다.
▪ 선생도 섭리역사의 생명들이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가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 예비 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 나와 같이 여러분도 섭리사에서 아브라함처럼 조건을 세우게도 만들고 다윗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극적으로 겪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쉴만한 곳, 있을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선생도 정말 힘든 곳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과 여러분을 인도하심과 세상을 어떻게 대하심을 생중계로 계속 해 주었습니다.
▪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을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과 극한 곳은 극한 그 나름대로 그러한 곳에서 있게 하십니다.
▪ 선생님이 월남 전쟁터에서, 많은 적들이 있는 산 속에 있었어도 그 후에 알고 보면 그곳이 가장 있을 만한 곳이고, 그 나름대로 안전한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빠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알고 보면 아주 아슬아슬한 장소였습니다. 그 여러 군데 중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가 우리가 작전을 하게 되고, 또 빠져 나오게 되고 했던 것을 볼 때 느꼈습니다.
▪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그런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 다른 한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기를 건너가는데 외나무다리밖에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급물살에 수영하고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외나무다리라도 잡고 가는 것이 낫잖아. 실오라기라도 잡고 갈 길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길보다 나아. 그것이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쉴만한 곳이야. 외나무다리를 건너갈지라도 그것이 물속으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다가 물먹는 것보다는, 외나무다리라도 조심조심 하며 가는 그것이 쉴만한 곳이니라. 외나무다리 위가 쉴만한 곳이니라. 외나무다리가 길면 얼마나 길겠느냐. 나무가 길어봤자 30미터 40미터지. 끝까지 조심해서 가야지. 내가 옆에 있어 함께하리니!”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 여러분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외나무다리를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며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 목숨이 살려면 평소에 본인이 아주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 그 어떤 곳이라도 제일 나은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쉴만한 곳이다.” 했습니다.

▪ 내가 유럽에 있을 때 공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공원에 나 홀로 있나. 두 명도 없이 혼자…….’하며 쓸쓸히 풀밭을 걸을 때 나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 그 환경에서는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곳이었습니다.
▪ 한번은 내가 혼자 있으면서 너무 쓸쓸해서 하루에 스무 번씩 창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때에 말씀이 왔습니다. 월명동의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그 돌 속에서 밤잠 못 자가면서 피곤하게 일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내가 너를 쉬는 곳으로 보내 준 것이다. 휴가철이다. 마음먹기 달렸어. 휴가 나왔어. 지금 휴가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 넘어질까 봐 걱정 안 하지, 돌 사러 가는 걱정 안 하지, 또 밤 작업을 걱정 안 하지, 여러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걱정? 누구 때문에 걱정?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 주께 맡겨라. 네 할 일이나 하면서, 찬양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젖이 어디에 흐르고 있고 꿀이 어디에 흐르고 있었습니까. 가보니까 너무 무서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적들이 많았지만, 한 족속 한 족속 싸워 이기면서 가나안을 복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복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쉴만한 물가가 있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샘을 파야 됩니다.
▪월명동도 쉬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독사, 뱀들이 4-500마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뱀을 400마리 이상 잡았다고 합니다.
▪물도 없지, 나무도 없지, 돌도 없지, 사람도 없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곳, 이상세계를 이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200미터를 파서 물을 꺼내 연못을 만들고, 먹을 물이 나오게 만들고, 나무는 여기저기에서 끌어다 심어서 사막 같은 곳을 나무숲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여러 곳에서 사다가 계속 쌓았습니다.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물도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화가 일어났습니다. 월명동에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대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갑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크게 됩니다. 사람이 크게 생각해야 크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들은 작아도 크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생각하고 인생을 크게 마음먹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지만 과감하게 인생을 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끼고 주님을 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기술을 배우면 기술자가 되는 것. 살이 없는데 자꾸 먹고 운동하면 살도 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배우면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가나안 복지를 갈 때도, 승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승리자, 이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생활 자체가 승리하는 생활을 못하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늘 인도하는 뜻대로 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너희들이 밟는 땅이 네 땅이 되리라.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모세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잘되고 형통한다. 승리할 수 있다. 시대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라. 승리한다. 하늘이 명령한 것을 믿고 가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른 짓을 하니까 바로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유혹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